

인사말씀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했던 추위가 물러나고, 새로운 시작과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계절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새싹이 세상에 첫 선을 보이듯 새로운 만남, 그리고 희망의 첫걸음을 내딛는 초등학교 입학 아동들에게 축하를 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축원합니다.

더불어 오늘을 격려하기 위해 동참하신 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특히 오늘이 더욱 뜻깊고 풍성하도록 매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KB국민카드 운용원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를 열어가면서 모두가 한결같이 행복한 세상을 기원하지만, 국내외 소식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합니다. 나와 나를 구분 짓고,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내가 더 갖기 위해 남에게 큰 상처를 주면서 갈등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는 불안과 걱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의 원인을 나 자신에서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의 생각을 나와 같이 만들어 보겠다는 배타적인 사고가 가장 큰 원인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념과 종교, 빈부와 인종을 넘어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 화해하며 나누고, 공손하게 배려하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KB국민카드의 후원으로 진행하는 "책가방 보내기"는 나의 것을 선뜻 나누겠다는 지혜로움을 통해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사회의 모범적 실천이라 할 것입니다.
나만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며, 우리 사회의 꿈나무로 키우
겠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건강한 실천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행속에서 나와 주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행복을 나누
는 상생의 문화가 더 확산되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시길 바라며, 모
든 아동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KB국민카드 윤웅원 사장님과 임
직원 여러분에게 거듭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의 향기로움으로 희망
의 꿈나무가 튼실하게 자라나기를 바라며,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불기2561년 2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